

중국 국유기업의 부패와 총자산이익률(ROA)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Corruption and Return on Assets (ROA)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이 구(Lee, Gu)* · 이정희(Lee, Jung Hee)**

ABSTRACT

China, as a country that preceded regime change, is a country that has implemented a gradual transition. Th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systemic transition originated corrup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present study, China's corruption and state-owned enterprises' return on assets (ROA) are empirically analyz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Based on the present research results, the main purpose is to prevent corruption problems which eventually may occur in existing socialist countries and previous socialist nations that preceded system transformation and reduce trial and error. As the present study analyzed financial statements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it is judged to be the basis for future follow-up studies. Indices such as democracy, freedom of speech and economic freedom, which have been used when analyzing socialist or dictatorship countries, come to be adopted as corruption-related indices when conducting empirical research on ROA, which is comprehensively analyzed to differentiate from other studies. This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which it allows an approach to the country's corruption problem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and spectrums.

Key words: Corruption, Chinese corruption,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Return on Assets (ROA)

* 제1저자: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동북아학박사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응용경제학박사

I. 서론

사회주의 국가는 내재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관료 중심적 사회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일처리로 투명성을 결여하기 쉽고 왜곡된 인적자원 배분(인사문제), 공공지출과 담합은 부패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국가가 부패할수록 국유기업은 정치권력과 연관된 집권세력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국유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유기업이 고용의 15%, GDP의 35%를 기여하고 있으나, 상업은행 대출의 75%, 본토 주식시장 상장(IPO)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원 배분이 편중돼 있다. 국영기업들은 대출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고, 자금회수 때에는 후순위가 되는 등 우대를 받고 있다. 반면 민영기업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조기 자금회수 압박 및 일시적인 경영성과 부진에도 부도 위기로 몰리는 상황이다. 그간 국유기업은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기업보다 낮은 이익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1990년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중소 국영기업 민영화, 2000년대의 주식회사 전환, 2010년대의 혼합소유제 등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성창훈, 2019).

본 연구는 중국의 부패와 국유기업의 경영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여 향후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을 선행한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 대처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와 국유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총자산이익률(ROA)간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ROA는 부채를 포함한 기업의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 볼 수 있는 지표로서 국유기업의 경영상 비효율성을 살펴보기 좋은 지표이기에 이를 활용하여 중국의 부패가 국유기업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기존 연구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이나 부패문제의 제도화 및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한 일반적 연구 분석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 국유기업 경영성과에 정치·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러한 지수를 중심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부패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패와 관련한 주요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국가를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주요지수들이 RO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부패와 관련된 각 주요 지수들이 부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로 다룬 ROA와 부패인식지수, 경제자유지수, 민주주의지수, 언론자유지수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ROA와 관련한 연구이다.

장옥화, 최현돌(2008)은 기업부실의 원인을 총자산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이론적 바탕으로 총자산이익률(ROA) 모형을 활용하여 부실기업을 예측하는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ROA 관련 재무비율들을 통합적인 결합모형으로 활용한 부실기업 예측모형은 간단하면서도 높은 예측력이 있으며,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빈, 이기성(2016)은 중국 상장기업의 소유구조인 경영진 지분율과 기업성과(ROA, ROE)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경영진 지분율과 모두 역 U자형의 관계로 나타나 경영진지분율과 기업성과 간에 비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유 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전체 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달리 경영진 지분율과 기업성과 간에는 비선형 관계가 아닌 단순한 선형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이사비율과 소유집중도는 경영자의 경영행위 감시의 역할로 이들은 높아질수록 기업성과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ROA가 기업의 부실 원인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둘째,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연구이다.

김진영(2019)은 국민의 부패인식 제고나 정부의 반부패 정책수립을 위해서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적절한 부패지수의 존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높게 나타냈으며 사회자본의 정서적 구성요소인 호혜성은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인지적 차원의 구성요인인 신뢰 중 일반신뢰는 부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회자본의 행동적 요소 중 참여변수만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기, 이정주(2014)는 부패인식지수를 기준으로 외부적, 내부적 제도적 통제전략을 설

명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내부적, 제도적, 통제의 수단과 부패인식지수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황지태(2017)는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부패인식지수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부패를 더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윤광재, 김윤수(2014)는 부패란 한 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 논의 하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수준과 국가경쟁력 간의 연구를 통해 그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남현정, 박선화, 김대중(2019)은 동아시아 국가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실제 부패가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부패인식지수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외부의 제도적 통제전략이 부패인식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검증하였고 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라 부패인식지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패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자유지수와 관련된 연구이다.

송헌재, 고선, 김지영(2016)은 경제자유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경제자유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분야 중 정부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지니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민(2007)은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계량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넷째, 민주주의지수와 언론자유지수와 관련된 연구이다.

Christine Kalenborn, Christian Lessmann(2013)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부패에 미치는 공동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제도적 특징이 대체가 아닌 보완적인 연구로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주적 선거는 어느 정도의 언론 자유가 있을 때만 부패를 통제하는데 작용한다고 하였다. Shyamal(2004)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 시장의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다시 정리하면 경제자유지수와 관련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경제자유지수는 무역

자유를 높이고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며 시장규제를 완화하면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새로 시작하는 나라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경제자유의 보편적 개선과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지수, 언론자유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는 부패를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부패 행위를 탐지할 수 있어 부패로 인한 기대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두 제도적 특징이 부패를 줄이기 위해 협력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부패했지만 부패한 정치인을 파악할 수 없어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로 보일 수 있으며, 어느 정치인이 부패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개혁과 언론자유와 공동실행을 통해 부패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패 관련 지수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국 부패 관련 지수 연도별 비교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부패인식지수	점수 (순위)	36 (79)	35 (78)	36 (75)	39 (80)	40 (80)	36 (100)	37 (83)	40 (79)	41 (80)	39 (87)	41 (80)
	총 조사국가 수	181	179	184	174	175	175	168	176	180	180	180
민주주의지수	점수 (순위)	3.09 (136)	3.14 (136)	3.14 (141)	3.00 (142)	3.00 (143)	3.00 (144)	3.14 (136)	3.14 (136)	3.10 (139)	3.32 (133)	2.26 (153)
	총 조사국가 수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언론자유지수	점수 (순위)	85.50 (167)	84.50 (168)	84.67 (171)	136 (174)	73.07 (173)	72.91 (175)	73.55 (176)	80.86 (176)	77.66 (176)	78.29 (176)	78.92 (177)
	총 조사국가 수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경제자유지수	점수 (순위)	53.2 (132)	51.0 (140)	52.0 (135)	51.2 (138)	51.9 (136)	51.9 (140)	52.5 (139)	52 (144)	57.4 (111)	57.8 (110)	58.4 (100)
	총 조사국가 수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en/>>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Group) <<https://www.economistgroup.com/>> /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https://rsf.org/en/>> /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 (2022년 10월 17일 최종 검색)

Ⅲ.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체제전환을 선행한 국가 중 현재까지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부패와 국유기업 경영성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장옥화, 최현돌(2008)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ROA를 부실기업 예측의 핵심 재무비율로 선정하여 부실기업을 예측하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국유기업의 경영성과를 ROA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도 모형이 간단하면서도 이론적 근거가 뚜렷하며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 부실화를 측정하는데 총자산이익률(ROA)을 활용하였다. 부패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국유기업 ROA와 관련된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부패와 관련된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ROA를 특정하고 있는 요인들이 실제 국가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이 일어날 때 효과적으로 부패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면서 겪게 되는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앞 장의 이론적 연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 부패인식과 관련된 지수와 RO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부패인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값이 클수록 부패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를 역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가설과 분석의 서술에 있어서 정(+)의 방향의 경우 ‘부패하다’가 아니라 ‘부패가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패라는 개념 대신 청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질수록 ‘청렴도가 향상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부문에서 부패의 반대 개념으로 ‘청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부패인식지수를 ‘국가별 청렴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부패인식지수(청렴도)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ROA는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민주주의지수, 경제자유지수, 언론자유지수 등을 중심으로 2009년

부터 2019년까지의 부패가 국유기업의 ROA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프로그램 Stata 17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를 2009년부터 2019년으로 정한 이유는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이후 2009년부터 2019년 동안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후 2020년부터는 코로나 발발로 인한 중국을 포함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연구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부패인식지수가 종속변수인 RO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통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STATA를 선택한 이유는 회귀분석에서부터 패널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제공하고 있고 변수를 검정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실증 분석의 특성상 원천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하여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사용된 자료는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EIU, 국정 없는 기자회견, 프리덤 하우스, 헤리티지 재단을 출처로 한다.

본 연구의 국유기업과 관련한 자료 중 중국은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 CGTE)에서 조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하에 일부 중앙 국유기업의 내용은 누락되어 CSMAR, WIND, BAIDU 에서 기업별 검색 및 확인하는 추가 작업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최종적인 표본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신뢰성이 높은 상장된 국유기업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모형 설계

중국의 부패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중심으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RO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 중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9년 36(79위)에서 2019년 41(80위)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주의지수는 2009년 3.09(136위)에서 2019년 2.26(134위)로 10년간 소폭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53.2(132위)에서 58.4(100위)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최근 시진핑이 추진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정책을 봐서는 향후 중국의 경제자유도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자유지수는 85.50(167위)에서 78.92(177위)로 더욱 악화 되었으며 중국의 강력한 언론통제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중국의 언론자유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모형에서는 부패지수가 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부(-)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ROA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우선 y_{it} =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중국(j)의 ROA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t는 시간적 범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중국의 현재 집권세력인 시진핑 주석이 후진타오 정권에서 부주석을 할 때인 2008년 3월부터와 시기가 겹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를 연구 시간적 범위로 정하였다. 또한 2020년도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2020년 이후의 국유기업의 ROA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해당 년도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기간의 변화에 따른 ROA와 부패관련 지수들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βx_{it} = 독립변수로 중국(i)의 부패인식지수에 로그를 취해서 나타낸다. 모든 모형에서 βx_{it} 는 고정적으로 두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γx_{it} = 종속변수에 미치는 통제변수로 중국(i)의 RO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벡터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러한 변수로는 민주주의지수, 경제자유지수, 언론자유지수로 각 모형에 따라 변수를 추가하고 제외하면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ROA에 미치는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모형: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ROA에 미친 영향

$$y_{it} = \alpha + \beta x_{it} + \gamma x_{it} + \epsilon_{it}$$

y_{it} = 중국(i)의 ROA에 로그를 취함

βx_{it} = 중국(i)의 부패인식지수에 로그를 취함

γx_{it} = 중국(i)의 RO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벡터에 로그를 취함

이러한 변수로는 민주주의지수, 경제자유지수, 언론자유지수로

모형에 따라 추가하고 제외함

ϵ_{it} = 오차항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ROA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공선성 검사 등을 통해 패널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검증한다.

〈표 2〉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기초통계

변수	개체수	표준오차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ROA	363	3.32	4.43	-19.03	27.95
부패인식지수	363	38.18	2.13	35	41
민주주의지수	363	2.95	0.34	2.26	3.32
경제자유지수	363	53.57	2.70	51	58.4
언론자유지수	363	84.18	16.99	72.91	136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ROA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 연속변수 값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오차의 차이가 큰 이유는 최소값 -19.03이 나온 이유는 2016년 중국 최대 상장 선사회사인 중국 제1 중공업 그룹이 조선 경기로 인해 큰 적자를 보고 적자가 난 자산을 인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대값이 27.5가 나온 이유는 중국 3대 정유주(페트로차이나, 시누크, 시노펙) 중 중국 국유 석유 공사(페트로차이나)가 2016년 상반기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유가가 악재인 상황에서 원유 사업은 저유가로 인해 수익성이 급감하였지만,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정유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노펙은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상관관계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간의 실증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 간에 상관관계 분석결과 ROA와 민주주의지수, 경제자유지수, 언론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지수와 경제자유지수가 0.5894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발달할수록 경제적 자유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상관관계

	ROA	민주주의지수	경제자유지수	언론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ROA	1				
부패인식지수	-0.0755	1			
민주주의지수	-0.0046	-0.0708	1		
경제자유지수	0.0095	0.5894	-0.2540	1	
언론자유지수	-0.0108	0.0094	-0.0375	-0.2897	1

3. 다중공선성

상관관계 분석 후 다중공선성(VIF)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10 이하로 나타나서, 변수 간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4〉 중국 변수의 다중공선성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VIF (평균:1.00)	VIF (평균:1.01)	VIF (평균:1.42)	VIF (평균:1.00)	VIF (평균:1.47)
부패인식지수	1	1.01	1.55	1.01	1.65
민주주의지수		1.01	1.08	1.01	1.10
경제자유지수			1.65		1.94
언론자유지수				1.00	1.18

4.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ROA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패인식지수는 ROA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의 가설인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ROA는 높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국유기업의 ROA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모형 5를 보면 중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1단위씩 높아질수록 ROA가 -1.0 단위로 평균적으로 감소한다. 다른 변수들은 ROA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패인식지수가 증가할수록 ROA를 감소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통제변수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지수, 경제자유지수, 언론자유지수는 ROA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ROA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부패인식지수	-0.56 (0.38)	-0.56 (0.4)	-0.92* (0.5)	-0.19 (0.4)	-1.0* (0.5)
민주주의지수		-0.18 (1.0)	0.15 (1.0)	-0.02 (1.0)	0.2 (1.0)
경제자유지수			0.64 (0.5)		0.71 (0.55)
언론자유지수				-0.56 (-0.02)	0.03 (0.11)

상수	5.4*** (1.58)	6.0* (3.5)	3.66 (3.94)	6.10* (3.55)	3.21 (4.2)
Prob > F	0.1511	0.3510	0.2957	0.5457	0.4341
R-squared	0.0057	0.0058	0.0102	0.0059	0.0105
Adj R-squared	0.0029	0.0003	0.0020	-0.0024	-0.0005
국가수	1	1	1	1	1
개체수	363	363	363	363	363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부패와 국유기업 ROA간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부정부패가 국유기업의 ROA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중국은 체제전환을 선행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패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 특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는 거시적,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의 통제력을 상실시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부패가 국유기업의 ROA와 연관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을 선행한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에서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부패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부패인식지수(청렴도)가 낮아질수록 국유기업의 ROA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의 기능주의자가 주장한, 부패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부패는 체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고 부패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확인시킨 것이다. Leff(1964)가 주장한, 관료들의 재량권독점과 정부의 개입 정도가 높은 발전도상국의 경우에는 부패가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Nye(1967) 또한 신생국이나 저개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는 자본 축적에 용이하고 고위 관료 사이의 분열이나 대립 등을 완화시켜주고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현재 중국과 같이 정부의 통제가 강력하고 관료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일정한 정도에서는 오히려 부패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킨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자유도와 민주주의의 지수, 언론자유지수 등 다양한 요인과의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특성상 국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특유의 국가자본주의 특성상 국영기업의 막강한 시장독점력을 토대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패로 인해 경영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면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경영에서 효율성을 중점으로 하는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국유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국가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중국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중국 당국이 반부패정책의 강화를 통해 부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지수가 증가하면 ROA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비록 결과 값이 유의하지 않지만, 중국이 일정 정도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향후 과거보다는 적극적인 자기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지수는 ROA를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은 관료의 영향력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RO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국유기업들은 경제자유화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ROA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내의 알리오와 같은 공공기관 공개시스템이 잘 운용되지 않고 있어서, 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려면, 주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주요정보를 공개하며 국유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유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가 큰 대응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지속적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길곤·변영주(2021). 부패개념의 변화와 부패연구 반부패 정책의 방향 탐색,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4): 265-286.
- 국민권익위원회(2021).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국민권익위원회.
- 권우덕·이선중(2020). 조직문화와 청렴정책 효과성 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5(2): 191-210.
- 김병섭·백승빈(2001). 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행정논총』 39(3) 27-52.
- 김진영(2016).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방지-은퇴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한국부패학회보』 21(4): 131-149.
- 김진영(2018). 부패발생 원인과 집단행동 원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법의 반부패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3(4): 25-48.
- 김진영(2019). “부패측정과 부패지수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24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 김혁(2015).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관료통제에 대한 연구 : 부패방지 체계로서의 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4(2): 257-282.
- 남현정·박선화·김대중(2019), “동아시아지역의 규제와 부패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중관계연구』 5권 2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류민정(2017). 부패통제 점검을 위한 평가모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07. 감사원 감사연구원.
- 박중훈·박준·정동재(2017). 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 KIPA 연구보고서 2017-12. 한국행정연구원.
- 박중훈·최유성(2009).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09-13. 한국행정연구원.
- 배병렬(2021). 『SPSS/PROCES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도서출판 청람.
- 성창훈(2019) 정부중심 중국경제의 리스크요인. 『나라경제』 343, 55-56.
- 송헌재, 고선, 김지영(2016).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와의 관계 실증분석”, 『질서경제저널』 Vol.19 No.2, 한국질서경제학회.
- 양채열·정재만(2021). 공공부문에서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윤리경영연구』 21(1): 35-55.
- 윤광재·김윤수(2014).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9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 윤은기·이정주(2014).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1권 2호, 한국부패학회.
- 이계민(2007).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범(2012).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자성(2014).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1(5) : 203-225.
- 이정주(2014).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

- 패학회보」19(2): 149-177.
- 이정주(2016). 선순환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반부패 관점에서 청렴 관점에서의 전환, 『한국부패학회보』 21(1): 99-122.
- 장옥화 · 최현돌(2008). “총자산이익률 모형을 활용한 부실기업 예측”, 『경제연구』, Vol.23 No.3, 한국 산업경영학회.
- 진빈 · 이기성(2016). “중국 상장기업의 경영진지분율과 기업성과 간 관계 분석”, 『아태연구』, Vol.23 No.3,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 황지태(2017). “불비례성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과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범죄학』 Vol.23 No.3, 대한범죄학회.
- Christine Kalenborn, Christian Lessmann(2013). “The impact of democracy and press freedom on corruption: Conditionality matters”, *Journal of Policy Modeling* 35.
- Brown, M. E., Trevino, L. K. & Harrison, D. A.(2005). Ethical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for construct development and tes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97(2). 117-134.
- Leff, N. H. (1964).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Princeton*, 8(Iss.3), 8-14.
- Nye, J. S.(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political science review*, 61(2), 417-427.
- Shyamal K. Chowdhury(2004). The effect of democracy and press freedom on corruption:an empirical test. *Economics Letters*, 85(1). 93-101.

[주요 참고 사이트]

-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http://www.sasac.gov.cn/>>
- 상해증권거래소<<http://www.sse.com.cn/>>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Group)<<https://www.economistgroup.com/>>
- 헤리스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https://www.heritage.org/>>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en/>>
-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https://rsf.org/en/>>
-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http://www.sasac.gov.cn/>>

투고일자 : 2022. 12. 17

수정일자 : 2022. 12. 28

게재일자 : 2022. 12. 31

<국문초록>

중국 국유기업의 부패와 총자산이익률(ROA)에 관한 실증분석

이 구 · 이정희

중국은 체제전환을 선행한 국가로서 점진적 전환을 시행한 국가이다.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유기업의 민영화, 사유화는 국유기업의 부패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부패와 국유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부패와 국유기업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을 선행한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 국유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향후 후속 연구에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를 분석할 때 사용되어온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도 등의 지수를 부패관련 지수로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의 실증연구를 진행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패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부패, 중국부패, 중국 국유기업, 총자산이익률(ROA)

